

도서지역 노후쇠퇴시설의 생태문화적 재생 방안* : 인천 옹진군 이작도를 중심으로

신 선 미** / 변 병 설***+

The Eco-Cultural Regeneration Method of Deteriorated facilities in Island regions : Focused on Ongjin-Gun Ijak-do, Incheon Metropolis

Sunmi Shin* / Byungseol Byun***

요지 : 본 연구는 이작도 내 산재해있는 폐교, 노후불량주택, 쇠퇴산업시설, 폐공간인 노후쇠퇴시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생태문화적 재생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도서지역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인 토지이용, 교통체계, 건축물, 자원순환, 보전 및 보존, 관광자원화, 기반시설 부문에서 중요요소를 선정하였고, 이작도의 노후쇠퇴시설에 적용 및 재생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폐교된 계남분교는 숙박과 교육이 가능한 이작 아일랜드 센터로 조성한다. 둘째, 노후불량주택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 내·외부 리모델링할 뿐만 아니라 생태교육관과 도서생활전시관으로 정비해야 한다. 셋째, 쇠퇴산업시설은 대합실 내 비지팅센터 설치와 해양체험의 장소로 조성하도록 한다. 넷째, 폐공간은 간이판매대 설치와 녹색교통체계 구축하고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해야 한다.

핵심용어 : 도서지역, 노후쇠퇴시설, 재생, 옹진군, 이작도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measure for eco-cultural regeneration by a detailed examination of closed down schools, old defective residences, deteriorated industrial facilities and space no long in use located throughout Ijak-do. The reserch method utilized a selection of the major elements from the eco-cultural regeneration element of island regions and a measure for application and regeneration on the deteriorated facilities of Ijak-do was proposed.

Keywords : Island, Deteriorated facility, Regeneration, Ongjin-Gun, Ijak-do

1. 서 론

과거 도서지역은 개발의 무관심으로 인해 낙후 지역으로 인식되어왔다. 최근 국내 개발정책의 편향성에 따른 과밀지역의 문제 대두와 국가균형발전, 낙후지역의 개발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더불어 해양 및 섬의 발전 잠재력에 대한 인식변화로 섬의 기능과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도서지역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지방적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간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서권별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양 및 도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과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로 이어지고 있다.

+ Corresponding author : byun@inha.ac.kr

* 본 연구는 2012년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인하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과 박사과정(01090458921@daum.net)

***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byun@inha.ac.kr)

도서지역은 내륙에서 볼 수 없는 우수한 생태 및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산업의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의 주민들은 민박, 펜션 등의 관광숙박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도서개발은 지리적, 환경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개발을 하고 있다. 반면, 그동안 상당기간 개발이 억제됨에 따라 관광기반시설과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불리한 지리적 조건과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진 섬 지역은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폐교, 빈집, 공터 등 노후 쇠퇴시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도서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범죄 장소로 이용될 수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러한 노후쇠퇴시설은 거주민이 타 지역으로 떠나거나 어업의 쇠퇴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도서지역 내 산재해 있는 노후쇠퇴시설과 도서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생태·문화적으로 재생할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이작도는 우수한 생태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로 인해 이작도의 개발가능지가 계남 부근과 섬 중앙의 농경지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작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바다생태마을 가꾸기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다른 섬 지역과 내륙에서 볼 수 없는 풀등 자원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어 관광시설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이작도 곳곳에는 오래전에 폐교된 계남분교와 빈집 또는 노후한 주택, 쇠퇴산업시설, 폐공간이 남아있다. 이작도의 정책사업과 노후쇠퇴시설의 현황을 고려해보면 도서지역 노후쇠퇴시설의 재생 방안 연구에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첫째, 도서지역의 노후쇠퇴시설은 폐교, 노후불량주택, 쇠퇴산업시설, 폐공간으로 구분하였고, 이작도의 현장조사 및 항공사진을

통해 노후쇠퇴시설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둘째, 도서지역 및 옹진군과 관련된 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옹진군, 이작도의 지역현황과 정책사업을 파악하였다. 셋째,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에 대한 중요도 분석’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대상지인 이작도의 노후쇠퇴시설 별 적절한 재생요소를 적용하였다. 넷째, 이작도의 지역현황과 ‘바다생태마을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노후쇠퇴시설의 생태문화적 재생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작도 내 산재해있는 폐교, 노후불량주택, 쇠퇴산업시설, 폐공간 등의 노후쇠퇴시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생태문화적 재생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이론 및 현황 고찰

2.1 노후쇠퇴시설의 개념 및 유형

노후쇠퇴시설의 개념과 유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노후는 오래되거나 낡아서 제 구실을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쇠퇴는 기세나 상태가 쇠하여 전보다 못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후쇠퇴시설이라 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설의 내외부가 낡거나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최상희, 2005). 본 연구의 노후쇠퇴시설은 도서지역에 방치되어있는 건물과 시설을 파악하여 폐교, 노후불량주택, 쇠퇴산업시설, 폐공간으로 분류하였다.

폐교는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초·중등교육법 제2조).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노령화에 따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간 학교가 통합되거나 폐교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폐교시설을 활용하여 문화시설, 관광휴양시설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폐교활용에 대한 정책 수립과 함께 일부 폐교시설 및 부지를 개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 가능해졌다. 최근 교육시설이나 수련시설, 복지시설 조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노후불량주택은 오래 전에 건축되어 주택 기능이 저하되거나 주택 내·외부의 개량이 필요한 노후주택과 일정기간 사람이 살지 않아 방치된 주택을 의미한다. 현재 도서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¹⁾에 의해 주택을 개량하거나 철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섬의 주택들은 대부분 해안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해안경관이 뛰어나고 섬의 생활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무조건적으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철거하기보다는 도서 특성을 가진 주택, 문화시설로 재생한다면 도서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쇠퇴산업시설은 과거 지역발전과 산업으로 인해 활용도가 높았던 공간이었지만 산업기능의 쇠퇴로 인해 버려진 시설을 의미한다(이승우·홍장원·한광석, 2004; 김성귀, 2004; 김성귀·홍장원·이성우·최지연, 2007). 도서지역의 쇠퇴산업시설은 어업과 관련한 시설물로, 기존의 역할과 기능이 쇠퇴하여 폐쇄되거나 방치된 산업시설물이며, 선착장, 등대, 어항, 해변이 포함된다. 최근 해양레저, 어촌체험과 연계하여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폐공간은 방치된 공간이거나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공간을 의미한다²⁾(곽수정, 2007; 박은선, 2009). 폐공간은 청소년의 탈선장소가 되거나 쓰레기 투기, 물건의 적재, 가설물 등의 설치, 불법 주·정차 공간이 되고 있어 환경악화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폐공간은 활용방법에 따라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공간이다.

섬 지역에 방치되어있는 건물과 시설은 범죄의 장소로 이용되고 도서 경관을 훼손시키지만, 도서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생태문화공간으로 재생시킨

다면 정주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관광매력도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2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는 노후쇠퇴시설의 생태문화적 재생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지속가능한 도서개발과 도서관광개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옹진군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김선명·정순관·이수창(2008), 이수창(2010), 노봉옥(2006)이 있다. 옹진군은 지리적으로인, 지형적으로인,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수준의 미비,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부족, 관광자원의 상품화 및 홍보의 부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지역문화축제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경보존에 중점을 두어 관광자원화해야한다고 제시하였다(노봉옥, 2006). 또한 도서종합개발사업의 대상 도서인 372개 도서를 자원개발 잠재력에 초점을 두어, 어업자원형, 산업자원형, 관광자원형으로 구분하여 도서유형을 개발하고 각 유형별 개발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옹진군은 대부분 관광자원형에 포함되며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에 재원을 투자해야 함을 밝혔다(김선명·정순관·이수창, 2008; 이수창, 2010).

지속가능한 도서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박종철(2004), 변병설·신선미(2011), M. Christofakis et al.(2009)이 있다.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적 재생요소에 대한 전문적 집단의 중요도를 파악하였으며, 현재 도서지역개발은 생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개발을 하고 있어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자원이 훼손되고 있다(변병설·신선미, 2011). 그리스의 도서개발과 정책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도서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M. Christofakis et al., 2009). 향후 도서개발은 해양의 생태·문화자원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변병설·신선미, 2011; M. Christofakis et al., 2009). 또한 도서지역은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빈집과 폐

1)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은 낡고 헐었거나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어촌지역에 있어 뒤떨어진 주거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조합계획은 마을토지이용, 주택개량 및 부역·화장실 개량, 공공기반시설 등 마을정비, 소요경비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다.

2) 폐공간은 유희공간, 버려진 공간, 쓸모없는 공간 등을 포함한다.

가 양상이 심각하고 경관을 해치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재정비 또는 재활용 방안에 대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박종철, 2004).

도서관광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홍선기(2007), 박창규(2009), M. Amoamo(2011)가 있다. 서남해안 지역의 섬과 연안일대의 자연 및 생태자원조사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생태문화관광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도서가 확보하고 있는 유무형자원을 활용하거나 그 연관성을 발굴하여 생태관광과 접목시켜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밝혔다(홍선기, 2007). 생태관광개발에 성공한 핏케언섬의 현황을 살펴보고 생태 및 문화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은 도서지역에 생태경제, 생태사회적으로 크게 기여함을 밝혔다(M. Amoamo, 2011). 서남해안 다도해섬을 대상으로 섬 관광개발의 새로운 발전 모델 및 특화방향을 모색하고 섬 지역자원을 활용한 개발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해양관광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해양관광시설과 활동은 매우 부족한 상황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박창규, 2009).

본 연구와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도서지역의 폐가, 폐교 등의 노후쇠퇴시설들이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결과에 있어서는 도서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생태자원 및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시설 및 관광지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서지역의 노후쇠퇴시설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도서지역에 적합한 노후쇠퇴시설의 재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3 이작도 현황

2.3.1 일반현황

이작도³⁾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에 속하

3) 이작도는 인천 연안항을 기준으로 직선거리 약 30km로 상대적으로 인천광역시와 근접한 도서이다. 인천 연안항과 경기도 안산 대부항에서 1일 4~5회 여객선과 차도선이 운행되고 있어, 타 도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또한 이작도의 인구는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

고, 면적은 4.02km²로 그리 크지 않은 섬이다. 섬 중심부에는 부아산과 송이산이 있어 산악지형을 띄고 있으며, 남쪽 해안은 모래해안이 펼쳐져 있고 북쪽해안은 소규모 갯벌과 암석해안이 발달되어 있다. 이작도는 풀등, 갯벌, 해안식생 등의 우수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으며,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 및 관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이작도 바다생태마를 가꾸기 사업⁴⁾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고유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풀등 생태자원 체험장, 바다학습공원, 해안 산책로, 왕궁터와 마성 복원 등 일부 시설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심진범 · 성보현, 2010). 개발가능지는 계남부근과 섬 중앙의 농경지 부근으로 다른 도서지역에 비해 굉장히 협소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션, 민박 등 숙박시설이 신축되고 있다. 이러한 도서개발사업은 소규모 개발에 불과하지만, 인위적으로 지형을 개변하거나 생태자원을 훼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경관과 생태환경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림 1. 대이작도 지도

자료 : 인천발전연구원, 2010

며, 이작도 주민의 70%는 농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또한 주민 50%정도는 서비스업을 겸업으로 하고 있다. 관광객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민박수입, 풀등탐방 운송수입 등 지역경제 수입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심진범 · 성보현, 2010).

4) 행정안전부는 섬 지역의 특성과 경관 등 고유자원을 활용해 친환경 생태섬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 남해안권의 10개 섬을 선정하여 2014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총 250억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인천 옹진군 이작도는 풀등 생태자원 체험관, 바다학습공원, 섬맛 개발 및 이작바다시장 개설, 바다사랑 브랜드 개발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3.2 노후쇠퇴시설 현황

이작도에 있는 노후쇠퇴시설은 오래전에 폐교된 계남분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신청된 주택, 선착장과 해수욕장 주변의 쇠퇴산업시설, 마을과 도로 곳곳에 있는 폐공간이 있다.

영화 ‘섬마을 선생’의 촬영 장소였던 계남분교⁵⁾는 이미 1992년에 폐교되어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다. 옹진군은 폐교된 계남분교를 이야기박물관으로 재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계남분교는 현재 개인소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매입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작도의 명소인 계남분교의 재생사업 구상과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작도 인구의 수는 안정적인 추세이지만 마을 곳곳에 노후불량주택이 존재하고 있다. 옹진군은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에 대해서 노후성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철거하고 있다. 문화시설과 관광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을 반영하여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입주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거나 관광기반시설로 쓰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작도의 해변과 선착장은 대체적으로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 편이지만, 모래유실문제로 해수욕장은 그 기능을 점차 잃어가고, 어업기능의 축소로 선착장 주변은 점차 쇠퇴하고 있다. 이작도 인근 해역에서 바다모래가 채취되고 있어 해수욕장의 모래가 유실되는 있으며, 옹진군은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해변 기능을 복원하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해수욕장에 모래를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은 아름다운 도서경관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지역의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업활동이 활발했을 당시의 선착장은 선박을 정박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각종 수산물들을 사고파는 장소이기도 했다. 그러나 어업소득이 줄어

들고 관광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펜션 등의 관광산업으로 전환하였고 선착장 또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공간이 되었다. 쇠퇴산업시설인 폐 선착장은 어업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아름다운 도서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주택간 버려진 공간, 도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폐공간은 쓰레기가 어지럽게 버려져 있고 불법 주차·정차의 공간이 되고 있다. 이곳에 버려진 쓰레기는 주로 페타이어, 페드럼통, 페어구 등으로 도서지역에서 반출하기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드는 폐기물들이다. 또한 대부분의 폐공간은 주요 관광지 주변에 있어 어지럽게 자동차가 주차·정차되어 있다. 폐공간은 이작도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휴식공간과 간이상점 등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작도의 관광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에 부응하는 관광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작도의 지역, 경제, 사회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노후쇠퇴시설의 재생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이작도의 노후쇠퇴시설의 현황

구분	건물명	현황	
폐교	계남분교	학교건물, 운동장 방치	
	노후 불량 주택	32*번지	10년 이상 건축물 사용
		43*번지	10년 이상 건축물 사용
		48*번지	30년 이상 건축물 사용
		52*번지	10년 이상 건축물 사용
		53*-1번지	10년 이상 건축물 사용
		54*번지	10년 이상 건축물 사용
		56*번지	10년 이상 건축물 사용
		57*번지	20년 이상 건축물 사용
		61*번지	20년 이상 건축물 사용
65*번지	10년 이상 건축물 사용		
쇠퇴 산업 시설	7**-1번지	10년 이상 건축물 사용	
	542-4계	정주어선 정박, 페어구 산재	
	295-1계	빈 공터	
	큰·작은폴안, 목장폴,계남해변	모래유실, 안전시설 미비	
폐 공간	여객 대합실	낙후된 휴식공간	
	산16*임	주차공간, 폐기물 산재	
	산18*임	폐기물 산재	
	39*-*	빈 공터	
	산15*-*임	빈 공터	
산24*-*임	빈 공터		

5) 영화 섬마을 선생의 촬영장소인 계남분교는 현재 폐교된 상태로 학교건물과 운동장부지뿐만 아니라 문희소나무, 영화 배경이 된 가옥이 남아있다. 또한 영화 촬영무대였음을 알리기 위해 섬마을 선생 촬영 장소 기념 표지석이 세워져있다. 옹진군은 계남분교를 활용하여 바다생태와 섬의 역사문화를 구현하는 이야기박물관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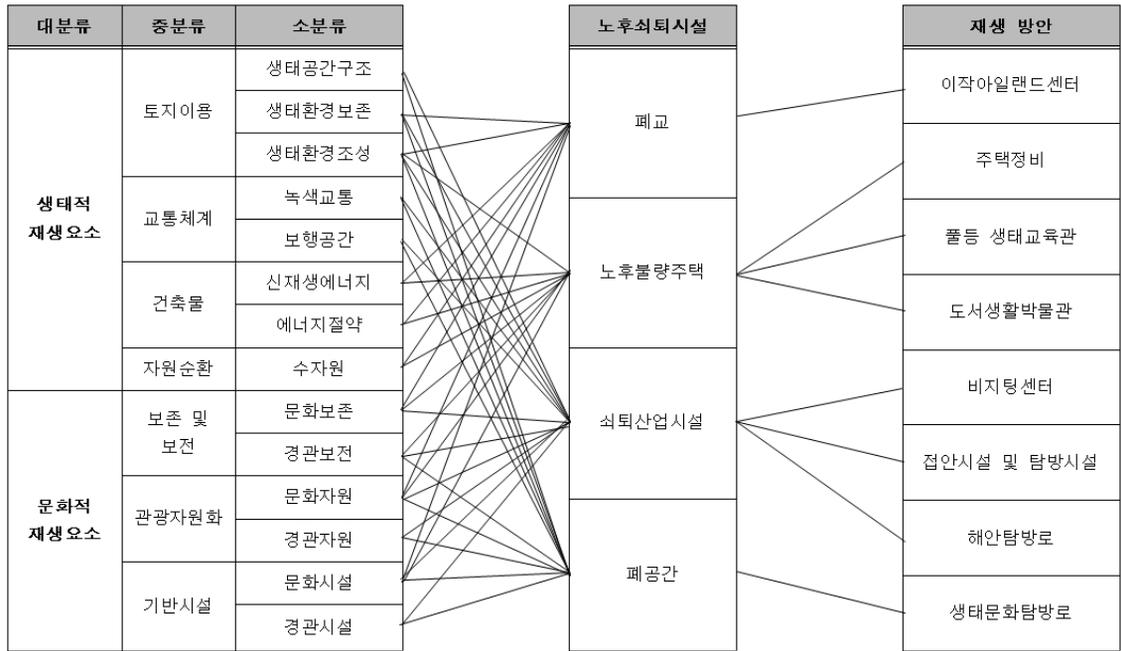


그림 2. 분석의 틀

3. 분석의 틀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적 재생에 대한 중요도 연구’의 분석결과⁶⁾를 바탕으로 이작도의 노후쇠퇴시설에 적용하고자 한다. 도서지역의 개발 동향, 농어촌 마을 및 생태·해양 도시와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도서지역의 재생 요소를 도출하였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를 선정하였다.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로는 토지이용, 교통체계, 건축물, 자원순환, 보존 및 보전, 관광자원화, 기반시설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노후쇠

6)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중요도를 파악하였고, 전문가 집단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분석하였다. 직업분야간 중요도에서는 토지이용부문과 보존 및 보전 부문에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전공분야는 교통체계와 관광자원화, 기반시설에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도서지역개발은 고유한 생태문화자원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관광시설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퇴시설은 이작도의 현황 조사를 통해 폐교, 노후 불량주택, 쇠퇴산업시설, 폐공간으로 선정하였다.

현장 조사와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이작도에 방치되어 있는 노후쇠퇴시설에 적합한 요소를 적용하여 노후쇠퇴시설의 재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이작도 노후쇠퇴시설의 재생 요소 적용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인 토지이용, 교통체계, 건축물, 자원순환, 보존 및 보전, 관광자원화, 기반시설에 대한 중요요소를 선정하였고 이작도 내 노후쇠퇴시설인 폐교 1곳, 노후불량주택 11곳, 쇠퇴산업시설 7곳, 폐공간 5곳에 적절한 요소를 적용시키고자 한다.

4.1 폐교

이작도의 유일한 폐교인 계남분교는 교육공간

이기도 하지만 ‘섬마을선생’의 촬영지로 의미 있는 공간이다. 폐교를 소유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라 폐교시설 및 부지를 개인에게 매각, 임대하여 교육시설이나 수련시설, 복지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옹진군에서는 이작도의 계남분교를 옛 영화 상영 및 전시가 가능한 이야기박물관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계남분교가 개인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학교 부지를 매입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이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게 임대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수도권과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조건과 주변 바다와 인접한 조건을 감안하여 교육과 숙박이 가능한 이작 아일랜드 센터로 조성하는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계남분교의 학교건물은 수도권에 위치한 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방문하여 숙박할 수 있도록 단체 숙박시설로 조성을 하고⁷⁾, 학교 운동장은 풍력, 태양열 등의 자연에너지 시설물을 설치하여 체험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⁸⁾. 이곳에서 발생하는 전력은 학교건물과 주변 가로등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4.2 노후불량주택

이작도의 노후불량주택은 큰말지구와 작은풀안 주변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곳의 대다수 주택들은 내·외부 개선이 필요한 노후주택과 사람이 살지 않는 방치주택이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오래전에 건축된 노후주택은 지역 내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덜기 위해 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내륙지역에 비해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고 환경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들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또한 이작도에 방문하는 수요에 비해 관광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을 반영하여 관광문화시설로 재생하여야 한다.

이작도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노후주택은 전력과 온수 공급이 원활하고 수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 저감형 주택으로 개선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섬 지역은 내륙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에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전기, 물 공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한편, 섬 지역은 태양, 풍력 등 자연에너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자연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과 온수 등을 생산해내고 물과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의 내·외부에 풍력발전기, 태양집열판, 절전기기,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이작도 내 방치된 주택은 ‘폴등 생태교육관’과 ‘도서생활전시관’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방치주택은 주로 해수욕장 주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폴등 주변에 위치한 작은풀안해수욕장은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접안시설과 관광편의시설과 연계하여 주변에 방치된 주택을 폴등과 관련된 체험교육과 이작도 관광안내가 가능하도록 생태교육관 건립이 필수적이다.

또한 방치된 주택은 특유의 어촌과 섬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고 도서주민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건축물이며 이곳 내에 버려진 어구, 생활물품들 또한 이작도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⁹⁾. 방치된 주택에 버려진 물건들을 전시하여 섬 특유의 도서생활박물관을 조성하도록 한다.

7) 현재 이작도 내의 숙박시설은 가족단위가 머물 수 있는 형태로, 10명 이상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비교적 넓은 학교 교실을 이용하여 단체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도록 재생시켜야 한다.

8) 이작도가 속해있는 경인권 도서지역은 내륙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인천 도서지역은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태양에너지와 해상풍력자원의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옹진군은 태양광과 풍력 및 조력을 활용한 발전시설, 태양열주택 등을 확대 보급하고 있다. 또한 해양에너지 메카 조성을 위해 97.5MW용량의 무의도 해상풍력발전단지과 200MW 용량의 덕적조류발전단지 등 대규모 해양에너지 단지와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9) 현재 이작도는 대부분 폴등체험을 통해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이작도 주민의 절반 이상이 선박과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학계와 지자체 관계자들은 이작도의 유래, 마성설화, 삼신할매 등의 수많은 역사문화자원과 부아산, 해안로 등의 자연경관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폴등 탐방을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4.3 쇠퇴산업시설

이작도의 쇠퇴산업시설로는 여객 대합실, 작은 풀안해수욕장의 접안시설과 탐방시설, 목장불해수욕장이 있다. 여객 대합실은 현재 관광객들이 여객선을 기다리는 휴식공간으로만 이용되고 있다. 이작도의 해수욕장은 큰풀안, 작은풀안 해수욕장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선착장은 인천연안여객터미널과 소이작도로 오가는 선착장 1곳을 제외하고는 개인어선 몇 대를 정박하는 수준으로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버려진 공간이 된 지 오래이다.

이작도의 관광프로그램과 관광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을 반영하여 여객 대합실 내 비지팅센터로 조성하고, 작은풀안해수욕장에 친환경적이고 저비용의 접안시설과 탐방시설을 설치하며 목장불해수욕장은 해양체험의 장소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작 여객터미널에 위치한 대합실은 관광객의 휴식처뿐만 아니라 대합실 내 이작도의 주요 관광지와 생태문화자원을 소개하는 관광지도와 홍보물 전시가 가능한 비지팅센터(Visiting Center)로 조성한다. 현재 이작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웅진군 관광지도, 개인 블로그의 소개를 통해 또는 숙박업체와 지역주민의 안내로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다¹⁰⁾. 이작도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바다생태마을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태문화관광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생태문화해설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생태문화해설사는 비지팅센터 내 상주하여 이작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해설과 도서문화를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풀안해수욕장은 해수욕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풀등체험 및 탐방이 가능한 곳이다. 그

러나 풀등선박의 접안시설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관광객들에게 위험시설일 뿐만 아니라 큰 불편을 주고 있다. 현재 있는 탐방시설은 해양생태계보전지역 해설관과 전망대만이 있는 상황이다. 안전한 접안시설과 저비용, 친환경적인 탐방시설을 조성하여 풀등체험교육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풀등은 해양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 그대로 이용하되, 관광편의를 위해서 접안시설과 탐방시설을 설치하는 게 시급하다.

큰풀안해수욕장과 작은풀안해수욕장은 넓은 해변이 펼쳐져있는 반면, 목장불해수욕장은 갯벌과 암석이 발달되어 있어 우수한 해안경관과 해양체험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따라서 목장불해수욕장을 해안탐방로로 재정비하여 해양자원을 활용한 섬 체험공간으로 조성한다. 이곳은 또한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특히 안전을 고려하여 웬스, 가로등의 설치와 인명구조함을 구비해 놓는다. 또한 해안경관을 감상하기 위해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정비하고 전망데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4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 해수면 상승, 홍수 발생 등 재해유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¹¹⁾.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다와 녹지를 연결하여 생태적 연속성과 서식지를 확보하는 블루그린네트워크(Blue-Green Network)를 조성하도록 한다.

4.4 폐공간

이작도의 폐공간은 작은풀안해수욕장 근처와 섬 중앙의 도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작은풀안해수욕장 근처의 공간은 해수욕을 즐기러 오는 관광객과 마을의 지역주민들이 주차하는 공간으로 이용하거나 섬 밖으로 방출할 수 없는 폐기물들을 버려놓는 공간으로 변해버렸다. 중앙도로 곳곳에

10) 이작도의 관광안내표지판은 종합관광안내표지, 해양생태계보전지역 안내표지, 혼성암해설표지가 있으나 마을과 관광지를 소개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작도 내에 있는 수많은 관광자원들을 소개하는 안내도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

11) 웅진군 내부자료와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웅진군의 기온이 2020년 1.3도, 2100년 4.3도 상승할 것이고 서해안 해수면이 연간 1.3m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에 해양 기후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는 사용되어지지 않은 빈터로 남아있다. 주요 관광지 근처와 관광지 동선을 따라 폐공간이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하여 간이판매대 설치와 녹색교통체계 구축하고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작은풀안해수욕장 근처 방치된 공간은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편의시설 또는 이작도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설치한다¹²⁾. 이곳의 폐공간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폐자재, 폐타이어 등 도서지역에서 버리기 어려운 폐기물들이 어지럽게 산재되어 있다. 폐기물을 이용하여 의자, 탁자를 만들어 편의시설을 만들고 간이상점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중앙도로 근처의 폐공간은 이작도의 생태문화자원¹³⁾을 스토리텔링하여 ‘이작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도록 한다. 또한 섬 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도보, 자전거, 전기차 등의 녹색교통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¹⁴⁾. 간이정류장 및 자전거 보관대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는 시설비용과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시설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한다. 폐공간을 활용하되 정류소와 보관대의 지붕은 햇빛을 차단하고 비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강화플라스틱재질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태양열전열판을 부착하여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과 가로등에 전력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2) 이작도는 관광업이나 숙박업에 비해 상업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다. 이작도에는 슈퍼마켓 1곳, 횃집 1곳, 정육점 1곳으로 상업시설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작도 주민이나 관광객들은 도심지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들어오고 있다.

13) 이작도의 지명유래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피난처로서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게 되어 난민이 살고 있었으며 그 당시 해적이 이 섬에서 은거하였다하여 이적도(伊賊島)라 불리다 이작(伊作)으로 변하게 되어 지금은 이작이라 부르고 있다. 이작도의 마성(馬成)은 1477년부터 조선왕조 말까지 400여 년 동안 국영목장으로 운영되어 온 터가 있었다는 설화가 있다. 삼신할매 약수터는 고려시대 때 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약수물을 정한수로 사용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약수물을 먹으면 삼신할매가 아들을 접시해준다는 전설이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다.

14)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바다생태마을 사업은 섬 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도보 및 자전거 등의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이 세워져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인천 옹진군 이작도 내 산재해 있는 폐교, 노후불량주택, 쇠퇴산업시설, 폐공간의 노후 쇠퇴시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생태문화적 재생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작도는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적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시설 조성 및 민박사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은 소규모 사업에 불과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협소한 개발가능지를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건축물과 기반시설의 조성하기보다는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둘째, 이작도의 관광자원으로는 풀등, 작은풀안 해변, 큰풀안해변, 계남해변, 목장불해변 등의 해양생태자원과 부아산, 송이산, 소규모의 야생화군락 등 육상생태자원, 그리고 영화 섬마을선생 촬영지인 계남분교, 마성과 삼신할매 설화 등 문화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등 체험을 중심으로 관광사업을 하고 있다. 다양한 생태문화자원을 이용하여 관광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작도 내 노후쇠퇴시설은 수십 년간 폐교로 방치되어온 계남분교, 생활하기 불편하거나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노후불량주택 11곳, 어업쇠퇴 또는 기능을 잃은 쇠퇴산업시설 6곳, 폐기물이 난립하고 주차공간으로 쓰이는 폐공간 5곳이 있다. 이는 주로 해안가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이작도는 매년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관광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작도 내 방치되어진 노후쇠퇴시설과 우수한 생태문화자원을 이용하여 생활환경정비와 관광시설로 조성하여야 한다.

넷째, 이작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도서지역은 전력과 물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폐교와 노후 불량주택을 문화시설, 숙박시설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시, 태양열, 풍력의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동절전시스템과 절수기기의 설치가 필수적이어야 한다.

다섯째, 폐교된 계남분교는 숙박과 교육이 가능한 이작 아일랜드 센터로 조성하고, 노후불량주택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 내·외부 리모델링할 뿐만 아니라 생태교육관과 도서생활전시관으로 정비해야 한다. 쇠퇴산업시설은 대합실 내 비지팅 센터 설치와 해양체험의 장소로 조성하도록 한다. 폐공간은 간이판매대 설치와 녹색교통체계 구축하고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도서지역개발의 기본방향 수립에 활용될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작도 바다생태마을 가꾸기 사업에 추가적인 사업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곽수정, 2006, 「유휴공간의 문화공간화를 위한 콘텐츠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6, 『한국사회의 질적 발전을 위한 구상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제이플러스 애드

김민철·장희정, 2008, 『도서의 관광콘텐츠 유형에 따른 관광매력요인 : 보길도, 선유도, 우도를 중심으로』, 한국관광·레저학회 관광·레저연구 제20권 제4호(통권 제 45호) pp.123~137

김선명·정순관·이수창, 2008, 『도서개발 효율화를 위한 도서유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0권 제3호(통권63호) pp.5~21

김성귀, 2007, 『해양관광론』, 서울: 현학사

김성귀·홍장원·이성우·최지연, 2007,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 살기 좋은 어촌, 가고싶은 바다 조성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

노봉옥, 2006, 『인천지역 해양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북아관광학회 동북아관광연구 제2권 제2호 pp.91~111

문유리 외 3인, 2010, 『도서지역의 친환경적 용

수공급계획 수립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박소연·신선미·변병설, 2009, 『경인권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의 특성분석』, 국토지리학회지 Vol.43 No.4 pp.587~597

박은선, 2009, 「문화도시 부산의 유희공간 활용 방안 연구」, 동아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

박종철, 2004, 『도서지역 중심시가치 변천과 과제에 관한 연구 : 신안군 임자면 진리 사례연구』, 도서문화 제24집 pp.189~213

박창규, 2009, 『서남해안 다도해 섬 관광개발의 발전전략』, 전남도립 남도대학 논문집 제11호 pp.49~63

변병설·신선미, 2011,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에 대한 중요도 분석』, 한국습지학회지 제13권 제3호 pp.687~696

변병설·전하나, 2008, 『인천 도서지역의 해양환경자원과 관리실태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11 No.4 pp.618~630

심진범, 2011, 『지역사회 기반 섬 관광정책 추진 방안 : 세어도를 중심으로』, 인천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심진범·성보현, 2010, 『해양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시스템 구축방안 : 대이작도 폴등을 중심으로』, 인천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윤상호, 2000, 『도서지역의 개발계획연구 : 덕적도』, 한국지역개발학회지 Vol. 12 No. 2 pp.67~80

이계열·김연수, 2008, 『도서지역의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 어청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연구 Vol. 20 No. 2 pp. 53~70

이수창, 2010, 『도서자원 활용 효율화를 위한 도서유형 개발』, 한국균형발전연구 제1권 제1호(통권53호) pp.97~118

이승우·홍장원·이윤정, 2009, 『어촌의 잠재적 가치 창출을 위한 명품 관광어촌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

- 이승우·홍장원·한광석, 2004, 『수산시설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
- 이태중, 2007, 『도서지역의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개발 정책방안』,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363~396
- 조경두·장훈, 2010, 『인천지역 기후변화 실태분석 및 적응대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인천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 조경만·염미경, 2000, 『역사를 중심으로한 도서지역의 관광활성화 전략과 지역발전 담론』, 아시아문화연구 Vol.4 pp.71~105
- 최상희, 2005, 「서울시 노후 공동주택 재생 결정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해양수산부, 2005, 『대이작 주변해역 생태계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안)』, 해양수산부 연구보고서
- 홍석준, 2004, 『도서지역의 관광개발의 지역문화』, 도서문화 Vol.24 pp.423~451
- 홍선기, 2007, 『도서해양의 생태·문화자원의 활용과 지역 활성화』, 농촌계획 Vol. 13 No. 3 pp. 61~72
- David B. Weaver, 2005, Comprehensive and Minimalist Dimensions of Eco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32 No.2 pp.439~455
- Geoffrey Wall, 1997, Tourism development and growth : the challenge of sustainability, pp.33~49(Londen : Routledge)
- Geoffrey Wall, 2002, Sustainable Development : Political Rhetoric or Analytical Construct, Tourism Recreation research, Vol. 27 No.3 pp.89~91
- Manolis Christofakis·George Mergos·Athanasios Papadaskalopoulos, 2009, Sustainable and Balanced Development of Insular Space : the Case of Greece, Sustainable Development 17, pp.365~377
- Maria Amoamo, 2011, Remoteness and Myth Making : Tourism Development on Pitcairn Island, Tourism Planning & development Vol.8 No.1 pp.1~19
- Poh Poh Wong, 2006, Island Tourism Development Strategies : Implications for Jeju,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9권 3호 pp.25~33

- 논문접수일 : 2012년 08월 31일
- 심사의뢰일 : 2012년 09월 04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11월 14일